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호 [루게 제22961호] 주제99(2010)년 1월 9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신심드높이 앞으로!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그 관철에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전 65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이것이 올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상이며 투쟁목표이다. 우리는 당의 호소마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 군사대국으로, 통성변영하는 경제대국으로 빛내이며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없이 잘 살게 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생산적안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하루빨리 열릴 수 있다.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는 것은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 요구이다. 당의 령도마라 세기를 주름잡는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여 온 우리의 대

고조전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거세한 대고조의 불길속에 경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는 우리 조국이 경제강국의 명마루에도 당당히 올라섰을 것은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이미 마련된 경공업의 강력한 토대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때 우리는 인민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강성대국의 명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수 있다.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인민들의 천만가지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 이끄는 데 모든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리념을 일떠세우자는 근본목적이 있다. 오늘의 대고조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려지게 함으로써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 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깨끗이 누려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

져오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는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다.

우리 당이 준엄한 시련속에서 오늘을 내다보고 하나하나 마련해 온 우리 경공업과 농업의 토대는 대단히 견고하며 우리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선군과 인민은 새해 정초부터 빨치산지강령대로 대고조적전장을 찾으며 천만군민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대한 열정과 신심에 넘쳐진 거룩한 영상을 우리들더욱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대고조의 거세한 열풍속에서 새기적인 변을 낸 우리 인민이 다시 한번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갈 때 이 땅에서는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으로 삼매 투쟁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애국애민들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오늘도 혁명적대고조의 진두에 서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고 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서 우리 선군과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장군님의 현지도강령군집은 곧 강령이요 결의라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위대한 구상을 한층욱 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정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리념과 기예에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적, 전국적투쟁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어머니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일대 선봉을 일으켜야 한다. 지방공업공정들을 만반으로 돌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를 애용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식료품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제품품질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중앙공

업과 함께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기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구체적인 옥종재배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게 하며 그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앞선 본보기단위들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전국 모든 농장들이 생산과 경영활동,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경쟁단위들의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농업생산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영농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고 온 나라가 떨쳐나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전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경공업과 농업발전의 관건적이고도 강하게 나와야 싸도 나고이고 기둥이 나온다.

군속, 전력, 석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농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높은 생산적안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을 제물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세의 승리에 열거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귀고이다.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과 치밀하고도 탄력한 조직지휘능력을 지니고 모든 경제사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모를 바고 능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으로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계획규율, 재정규율, 로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며 여러가지 경제공간들을 유계 활용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현지도단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경공업공정들과 협동농장들을 찾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하여주시고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면시켜주시고, 현지도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몸소 씨를 뿌리시고 행복의 열매를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장군님의 현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신심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평양방직공장, 희천제사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회령기초식품공정들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현지도단위들에서서 현대화의 동음을 더욱 거세하게 울려 질풍은 인민소비품과 식료품들이 팡팡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 미곡과 은총, 동봉과 오곡을 비롯한 사회주의협동벌마디에서 알곡증산의 혁신적성과 농업에 박차를 가할 때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별이 어둠속에서 빛나기 위하여 불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고있는 초소를 전진시켜 나가야 하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드높은 혁명적분위기 가 차려지게 하고 누구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수뇌부뒤에 일심단결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총돌격 앞으로!

올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자

평안북도, 남포시군 중대회 진행

올해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 남포시군중대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 각계층근로자, 청년학생들이 군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중대회에서는 김령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신의주선발공정지배인 김성수, 도농촌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도길, 국가파학원 화학산업연구소 소장 김경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는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려야 할 보람찬 투쟁의 해라고 하면서 새해 공동시설을 받들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할 때에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전례없이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나갈 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신의주선발공정, 신의주화학공정 등 경공업공정들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지방공업공정들에서도 지방의 현대, 자재로 생활필수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정들이 선군시대 본보기농장들을 따라가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집결할 때에 언급하였다.

그들은 수송발전소와 태천발전소, 구장지구관방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기세드높이 생산을 높이며 온 산공공정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대담하고 품이 크게 진행할 때에 언급하였다.

관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정들에서는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

제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시, 군소재지들과 농촌마을들을 잘 꾸리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위대한 구상을 받들어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일 때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내 로동계급이 150일전투, 100일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친 그 기세, 그 기세를 새로운 전진속도를 창조해나가며 청년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과 어엿고 힘든 전투장들을 이끄는 청년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적의 통과자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포시에서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강양도 시장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강서련직공정 지배인 리철철,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윤춘화, 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박성규, 남포농업대학 학장 김기덕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시설은 전

전개해나갈 때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대고조시대를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하며 모든 단위에서 군사중시기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현대화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뒤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켜나가는 승풍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혼을 관철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세차게 벌릴 때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파감한 투쟁을 벌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게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새해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피륙은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석탄공업부문의 각기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희망찬 새해의 첫 전투에서 높은 생산성적을 기록하고있다.

종횡무림 자로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석탄공업부문의 각기 탄광들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수천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매일 수천t의 석탄을 더 생산

새해 첫 전투에 돌입한 각기 탄광들에서

탄광들에서 현일 혁신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있다.

지난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령을 받은 안주지구관방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릴 결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성파를 확대하고 있다.

태항, 신리, 철리탄광을 비롯한 안주지구관방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비약적인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이후 2단계개발구역조업을 앞당기고 석탄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전담있게 잘한 결과 새해 첫 하루동안에만도 지난해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량의 석탄을 생산하여 나라의 동력기기에 보내주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관방련합기업소, 독장지구관방련합기업소, 북창지구관방련합기업소, 구장지구관방련합기업소, 온성지구관방련합기업소에서 높이 세워진 일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개천과 강동, 한강과 명천, 경원과 천내지구의 탄광들은 물론 각지의 크고작은 탄광들에서 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전 투쟁과 확대되는데 맞게 작

전을 잘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각기 탄광련합기업소들의 일군들은 새해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집수한 구달음으로 여러 탄광들과 탄광들에 나가 총진군에 떨쳐나선 탄부들에게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올해에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안주지구관방련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을 찾으며 주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석탄생산량을 비약의 궤도에 올려세우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지금 각기 탄광들에서는 석탄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새쟁, 새 구역을 조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안의 시급기관들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새해 첫 금요를 평양시 주변농촌에서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취기에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안의 시급기관들에서는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촌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할 굳은 결의를 다진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으로 달려나가 거름 실어내기과 과일나무를 심을 구덩이파기작업을 진행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자기들이 마련한 많은 거름을 맞들이와 질풍으로 실세웠고 이르고 과일나무를 심을 구덩이파기작업을 하는 정무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올해에 농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많은 화물을 수송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적극 추동할 열의에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고있다.

올해에 수송수준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다그치는데 기여할 한마음으로 펼쳐나선 개천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기세좋게 달려온다. 이 첫 수송전사들은 첫날에 인초파운동》의 불길높이 더 많은 짐을 나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일별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평양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 열의에 넘쳐 새해전투에 진입하였다. 수송전사들마다에서 공동시설과관철을 추동하는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속에 국적인 수송실적이 계속 오르고있다.

특히 서평양기관차 수송전사들이 기관차수리와 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실동기대수를 보장하여 첫날 수송계획을 112%로 수행하고있다.

평안북도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 열의에 넘쳐 새해전투에 진입하였다. 수송전사들마다에서 공동시설과관철을 추동하는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속에 국적인 수송실적이 계속 오르고있다.

특히 서평양기관차 수송전사들이 기관차수리와 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실동기대수를 보장하여 첫날 수송계획을 112%로 수행하고있다.

평양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 열의에 넘쳐 새해전투에 진입하였다. 수송전사들마다에서 공동시설과관철을 추동하는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속에 국적인 수송실적이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를 자랑찬 농업생산성으로 빛내이자!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10월의 광장에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리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얼마나 세찬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구호인가.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새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에서 승리의 추풍과 오를 10월의 대추전장을 그려본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쌀더미를 높이 쌓고 승리의 경축광장에 들이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업전선의 앞에서 달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관철을 보루는 방승원의 열기면목이다. 나뭇기는 붉은기, 포진기를 짝 매우며 거름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트랙터들과 신심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신 각지 협동농

장들에서 이렇게 시작된 새해 첫 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대고추의 불결이 세차게 떠오르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올해농사에 필요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성과적으로 확보하고 첫 한우일 동안에 1만여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과연 무슨 힘이 있어 이런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그것은 미곡협동농장은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었다.

한기에 첫날부터 포전에 거름을 실어내고 오수정화장의 감람을 파내는 전투현장은 격진장을 방불케 하였다. 웃웃을 벗어제끼고 련속 곡뎀을 휘둘러대며 명명 얼어붙은 감람을 파내는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조원들, 질풍이 넘쳐나게 감람과 거름을 가득 담고지고 달려가는 청년들,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는 로동자, 사무원들 비롯한 지원자들...

농장일군들과 조공일군들은 아들이 깃들면 포진별다수확품종의 논벼종자배지와 병방성도판자제 준비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알곡증산성으로 보답하자면 종자혁명에서도 우리 농장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신심에 넘친 관리위원장의 목소리에 호응해나선 일군들은 작업반별토양분석자료를 놓고 포진마다 배지하 우량품종의 논벼종자를 하나하나 선별해나갔다. 그리고 포진별토양의 특성에 맞게 거름을 실어내는 문제와 다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장에 실 드논은 열의로 가슴을 끓이며 명명 얼어붙은 땅과 맞서 전투를 벌려나갔다.

기계화초병들은 교대당 운반회수를 더욱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트랙터마다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풍천군 신암협동농장, 합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었다.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이설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새해농사차비에 산악같이 떨쳐나 그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그날부터 제령군 소재지에서 삼지강협동농장으로 뻗은 도로에는 도시거름을 실은 트랙터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갔다. 먼곳에서 도시거름을 실어들이어하는 일군들이 맞춰 농장일군들의 도시거름을 실어들이는 문제를 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정하고 료진기제들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도시거름을 실은 트랙터들의 발동소리는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그칠새 없이 울리었다.

며칠동안 수천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던 협동군 신암협동농장에서 이룩되고있는 농사차비성과는 또 얼마나 자랑스

러운가.

신암협동농장에서 첫 전투성과가 확대되고있을 때 동해지구농사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합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농사차비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신성과를 이룩하였다.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여러 농장원들이 세대에서 1천의 거름을 생산할것을 결의해나선 농장원들이 저마다 호응해나섰다.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 그들의 드논은 열의로 하여 포진전에는 각종 유기질비료를 실은 료진기제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렸고 포진전에는 시간이 다르게 거름더미들이 솟아올랐다.

혁신의 기상 약동하는 본보기농장들의 포진마다에 붉은기가 새겨져 퍼덕인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차게 나뭇기는 붉은기, 그것은 진정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것으로써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며 10월의 광장에 들이설려는 본보기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신념의 기발, 승리의 기치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이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꺾여나갈 수 있습니다.》

새일이 류름푸를 밝아오는 이른 아침이다. 휘날리는 붉은기, 새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보루는 방승원의 열기면목이다. 나뭇기는 붉은기, 포진기를 짝 매우며 거름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트랙터들과 신심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신 각지 협동농

장들에서 이렇게 시작된 새해 첫 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대고추의 불결이 세차게 떠오르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올해농사에 필요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성과적으로 확보하고 첫 한우일 동안에 1만여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과연 무슨 힘이 있어 이런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그것은 미곡협동농장은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었다.

한기에 첫날부터 포전에 거름을 실어내고 오수정화장의 감람을 파내는 전투현장은 격진장을 방불케 하였다. 웃웃을 벗어제끼고 련속 곡뎀을 휘둘러대며 명명 얼어붙은 감람을 파내는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조원들, 질풍이 넘쳐나게 감람과 거름을 가득 담고지고 달려가는 청년들,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는 로동자, 사무원들 비롯한 지원자들...

농장일군들과 조공일군들은 아들이 깃들면 포진별다수확품종의 논벼종자배지와 병방성도판자제 준비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알곡증산성으로 보답하자면 종자혁명에서도 우리 농장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신심에 넘친 관리위원장의 목소리에 호응해나선 일군들은 작업반별토양분석자료를 놓고 포진마다 배지하 우량품종의 논벼종자를 하나하나 선별해나갔다. 그리고 포진별토양의 특성에 맞게 거름을 실어내는 문제와 다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장에 실 드논은 열의로 가슴을 끓이며 명명 얼어붙은 땅과 맞서 전투를 벌려나갔다.

기계화초병들은 교대당 운반회수를 더욱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트랙터마다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풍천군 신암협동농장, 합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었다.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이설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새해농사차비에 산악같이 떨쳐나 그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그날부터 제령군 소재지에서 삼지강협동농장으로 뻗은 도로에는 도시거름을 실은 트랙터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갔다. 먼곳에서 도시거름을 실어들이어하는 일군들이 맞춰 농장일군들의 도시거름을 실어들이는 문제를 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정하고 료진기제들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도시거름을 실은 트랙터들의 발동소리는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그칠새 없이 울리었다.

며칠동안 수천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던 협동군 신암협동농장에서 이룩되고있는 농사차비성과는 또 얼마나 자랑스

러운가.

신암협동농장에서 첫 전투성과가 확대되고있을 때 동해지구농사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합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농사차비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신성과를 이룩하였다.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여러 농장원들이 세대에서 1천의 거름을 생산할것을 결의해나선 농장원들이 저마다 호응해나섰다.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 그들의 드논은 열의로 하여 포진전에는 각종 유기질비료를 실은 료진기제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렸고 포진전에는 시간이 다르게 거름더미들이 솟아올랐다.

혁신의 기상 약동하는 본보기농장들의 포진마다에 붉은기가 새겨져 퍼덕인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차게 나뭇기는 붉은기, 그것은 진정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것으로써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며 10월의 광장에 들이설려는 본보기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신념의 기발, 승리의 기치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이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꺾여나갈 수 있습니다.》

새일이 류름푸를 밝아오는 이른 아침이다. 휘날리는 붉은기, 새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보루는 방승원의 열기면목이다. 나뭇기는 붉은기, 포진기를 짝 매우며 거름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트랙터들과 신심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신 각지 협동농

장들에서 이렇게 시작된 새해 첫 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대고추의 불결이 세차게 떠오르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올해농사에 필요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성과적으로 확보하고 첫 한우일 동안에 1만여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과연 무슨 힘이 있어 이런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그것은 미곡협동농장은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었다.

한기에 첫날부터 포전에 거름을 실어내고 오수정화장의 감람을 파내는 전투현장은 격진장을 방불케 하였다. 웃웃을 벗어제끼고 련속 곡뎀을 휘둘러대며 명명 얼어붙은 감람을 파내는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조원들, 질풍이 넘쳐나게 감람과 거름을 가득 담고지고 달려가는 청년들,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는 로동자, 사무원들 비롯한 지원자들...

농장일군들과 조공일군들은 아들이 깃들면 포진별다수확품종의 논벼종자배지와 병방성도판자제 준비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알곡증산성으로 보답하자면 종자혁명에서도 우리 농장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신심에 넘친 관리위원장의 목소리에 호응해나선 일군들은 작업반별토양분석자료를 놓고 포진마다 배지하 우량품종의 논벼종자를 하나하나 선별해나갔다. 그리고 포진별토양의 특성에 맞게 거름을 실어내는 문제와 다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태권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흠뻑이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갔다. 조진은 불리하고 파제는 방대했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이 웅대수확품종의 벼모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모판자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도 찾아냈다.

장에 실 드논은 열의로 가슴을 끓이며 명명 얼어붙은 땅과 맞서 전투를 벌려나갔다.

기계화초병들은 교대당 운반회수를 더욱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트랙터마다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풍천군 신암협동농장, 합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었다.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이설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새해농사차비에 산악같이 떨쳐나 그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그날부터 제령군 소재지에서 삼지강협동농장으로 뻗은 도로에는 도시거름을 실은 트랙터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갔다. 먼곳에서 도시거름을 실어들이어하는 일군들이 맞춰 농장일군들의 도시거름을 실어들이는 문제를 농사차비의 중요항목으로 정하고 료진기제들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도시거름을 실은 트랙터들의 발동소리는 이른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그칠새 없이 울리었다.

며칠동안 수천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던 협동군 신암협동농장에서 이룩되고있는 농사차비성과는 또 얼마나 자랑스

러운가.

신암협동농장에서 첫 전투성과가 확대되고있을 때 동해지구농사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합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농사차비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신성과를 이룩하였다.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여러 농장원들이 세대에서 1천의 거름을 생산할것을 결의해나선 농장원들이 저마다 호응해나섰다.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 그들의 드논은 열의로 하여 포진전에는 각종 유기질비료를 실은 료진기제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렸고 포진전에는 시간이 다르게 거름더미들이 솟아올랐다.

혁신의 기상 약동하는 본보기농장들의 포진마다에 붉은기가 새겨져 퍼덕인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차게 나뭇기는 붉은기, 그것은 진정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것으로써 풍년농약소리 높이 울리며 10월의 광장에 들이설려는 본보기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신념의 기발, 승리의 기치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어기는 문턱 동림협동농장 제 14 작업반 거름실어내기전투이다.

원 김이 문문 나는 거름을 가득 싣고 포진길을 달려가는 트랙터들, 방승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격동적인 노래소리, 신심과 락판에 넘쳐 거름을 부리는 농장원들...

원근업인 아득한 간성지벌이 창조의 열풍으로 끓어번진다.

《웃기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변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에 접한 우리 농장원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의 가슴속에 고쳐치는것

이마의 땀을 흘리며 격정에 젖어 러지는 농장일군의 목소리이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농장원들이 걸썩게 말은 작업을 다그친다.

보안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을 실은 트랙터들과 달구지들이 연해연방 포진으로 들어선다.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 거름무지들이 부쩍 늘어난다.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면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신심과 능력이 떨쳐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남편지 적세함에 뛰어들라 결이대질을 하는 조공일군들과 청년들, 그에 뒤질새라 운전대를 으르러지게 틀어잡고 트랙터를 몰아가는 운전수들...

이들의 가슴속에 고쳐치는것

은 주공전선을 지켜선 궁지, 뜻있는 올해에 기어이 필요한 거름을 안아오려는 뜨거운 마음이다. 거름을 가득 실은 트랙터가 어느새 다른 포진에 들어선다.

《자,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칩시다.》

작업반장 고영남동무의 호소에 작업반원들이 호응하여 트랙터의 거름을 와닥닥 부리운다. 잠간사이에 또 하나의 거름무지가 솟아난다.

《거름은반개씩 나눠 수행!》

포진속보행에 이르면 혁신의 소식이 나뭇가지에 울려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을 더욱 끓게 한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전물을 안고 10월의 광장에 자랑스럽게, 땀뻑하게 들이서려는 이들의 역설 기상인양 곳곳에서 붉은 기발들이 더욱 세차게 펄떡인다.

본사기자 문길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

북부고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대고추전장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었다. 종합자료에 의하면 올해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드논은 열의로 농사차비에서 떨쳐나선 대고추전과 삼지연군, 백안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지 며칠 동안에 수만의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당창건 65년을 맞는 뜻있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

을 결사관철하려는 이국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남는 걸실이다.

새해전투의 첫 포진은 백두삼천리대의 대고추전장에 울려 퍼졌다. 공동사업의 호소를 받들고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할 불굴은 열의로 농사차비에서 떨쳐나선 대고추전과 삼지연군, 백안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지 며칠 동안에 수만의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당창건 65년을 맞는 뜻있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어기는 문턱 동림협동농장 제 14 작업반 거름실어내기전투이다.

원 김이 문문 나는 거름을 가득 싣고 포진길을 달려가는 트랙터들, 방승선전에서 울려나오는 격동적인 노래소리, 신심과 락판에 넘쳐 거름을 부리는 농장원들...

원근업인 아득한 간성지벌이 창조의 열풍으로 끓어번진다.

《웃기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변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에 접한 우리 농장원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의 가슴속에 고쳐치는것

이마의 땀을 흘리며 격정에 젖어 러지는 농장일군의 목소리이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농장원들이 걸썩게 말은 작업을 다그친다.

보안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을 실은 트랙터들과 달구지들이 연해연방 포진으로 들어선다.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 거름무지들이 부쩍 늘어난다. 당창건 65년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면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신심과 능력이 떨쳐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남편지 적세함에 뛰어들라 결이대질을 하는 조공일군들과 청년들, 그에 뒤질새라 운전대를 으르러지게 틀어잡고 트랙터를 몰아가는 운전수들...

이들의 가슴속에 고쳐치는것

은 주공전선을 지켜선 궁지, 뜻있는 올해에 기어이 필요한 거름을 안아오려는 뜨거운 마음이다. 거름을 가득 실은 트랙터가 어느새 다른 포진에 들어선다.

《자,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칩시다.》

작업반장 고영남동무의 호소에 작업반원들이 호응하여 트랙터의 거름을 와닥닥 부리운다. 잠간사이에 또 하나의 거름무지가 솟아난다.

《거름은반개씩 나눠 수행!》

포진속보행에 이르면 혁신의 소식이 나뭇가지에 울려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을 더욱 끓게 한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전물을 안고 10월의 광장에 자랑스럽게, 땀뻑하게 들이서려는 이들의 역설 기상인양 곳곳에서 붉은 기발들이 더욱 세차게 펄떡인다.

본사기자 문길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

북부고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대고추전장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었다. 종합자료에 의하면 올해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드논은 열의로 농사차비에서 떨쳐나선 대고추전과 삼지연군, 백안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지 며칠 동안에 수만의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당창건 65년을 맞는 뜻있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

을 결사관철하려는 이국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남는 걸실이다.

새해전투의 첫 포진은 백두삼천리대의 대고추전장에 울려 퍼졌다. 공동사업의 호소를 받들고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할 불굴은 열의로 농사차비에서 떨쳐나선 대고추전과 삼지연군, 백안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지 며칠 동안에 수만의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당창건 65년을 맞는 뜻있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핵 밀약문서는 핵전쟁기도의 증거물

결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자들의 정체를 어느때까지 밝혀지거나면이다. 일본이 바로 그 적이 되었다.

얼마전 일본 전 수상 사토의 집에서 1969년에 일본과 미국사이에서 합의한 핵밀약문서가 발견되었다. 이 핵밀약문서에는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구동맹국》을 위해 《중대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과 《사전협정》을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되 반입하거나 핵무기를 적정한 미군함선에 오기나와를 통과할 권리를 가지며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에 즉시 응한다

지금 핵밀약문서공개로 일본에서 소동이 일고있다. 일본당국은 이 핵밀약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 《전문가위원회》를 내온다. 사토친척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전에 공개된 핵밀약문서는 과연 어떤 해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토친척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일미사이에 핵밀약문서가 조적된 때로 말하면 일본 전 수상 사토가 세계에 내놓은 핵무기개발을 위한 과학연구를 진행하였던 여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일본의 핵무기개발행동은 오늘날에 와서야 마음껏 먹으면 어느때까지 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2005년 말 시점에서 일본이 국내외의 원자력시설들에 보유하고있는 플루토늄총량은 원자탄인 경우 4400여톤을 제조할수 있는 양에 달하였었다.

일본의 핵무기개발행동에 대해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여러 국제기구들, 수많은 나라들과 인사들이 일본에 한두번만 충고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일본은 자기의 《정백성》을 운운하였으므로 그 막사에서 핵무기개발을 일으켜온 일본은 원자탄을 제조할수 있는 양에 달하였었다.

일본은 지난 시기 그 무는 《사전협정의》의 의무를 쓰고 미국과 여러차례 핵밀약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 행로를 통해 드러났으나 일본은 그에 대해 계속 부인하여왔다.

일본은 전후 수많은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놓고 핵무기개발을 위한 과학연구를 진행하였던 여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일본의 핵무기개발행동은 오늘날에 와서야 마음껏 먹으면 어느때까지 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2005년 말 시점에서 일본이 국내외의 원자력시설들에 보유하고있는 플루토늄총량은 원자탄인 경우 4400여톤을 제조할수 있는 양에 달하였었다.

일본은 지난 시기 그 무는 《사전협정의》의 의무를 쓰고 미국과 여러차례 핵밀약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 행로를 통해 드러났으나 일본은 그에 대해 계속 부인하여왔다.

일본의 핵무기개발행동은 자국령토에 미국의 핵무기반입, 비축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전의 묵인비호하에 강행되어왔다. 이는 다른 하나의 엄중성이다. 일본 전 수상 사토가 미국 전 대통령 닉슨과 이마를 맞고 핵밀약을 한 사실은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북동아시아지역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벌써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이 제헌후 도리어 그 누구의 허구적인 《핵위협》에 대해 목청을 높여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양심 대소할 일이다. 역시 일본특유의 강도성과 교묘성의 발로이다.

일본처럼 《비핵3원칙》을 제창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핵무기개발행동을 발파적으로 다그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고있으며 자들의 제정목적에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일본에 의해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반동들의 핵무기개발행동에 경계심을 늦추고있다. 《비핵3원칙》의 내용을 쓴 일본의 핵무기개발행동은 자멸의 합정을 파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핵야심을 털어버려야 한다.

경제발전을 다그칠것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1일 TV방송연설에서 새해에 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으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후과가 성과적으로 극복되었다고 말하였다.

2010년에 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이며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발전을 이룩할것을 호소

인디아수상 만모한 싱이 3일 과학자대회에서 연설하면서 과학기술발전을 이룩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식량안전을 담보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등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

파키스탄수상 마크툼 헤이드 유수프 라자 길라니가 1일 팔레스티나인민총당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파키스탄은 무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조선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높이 새해 2010년을 맞이하였다.

새해 2010년을 맞으며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무할것을 호소한다.

메히꼬의 정당, 단체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선군대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 이라하고 굳게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기념할수있도록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것을 축원한다.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무할것을 호소한다.

메히꼬의 정당, 단체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선군대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 이라하고 굳게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기념할수있도록

중국에서 출판 《조선명곡집》

중국 베이징출판집단공사와 베이징출판사에서 조중외교관계설정 60돐에 즈음하여 《조선명곡집》을 출판하였다.

《혁명 노래하다》, 《조국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하다》, 《군민을 노래하다》 등 8개의 주제로 구성된 《조선명곡집》은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꾸 바 에서 꾸바에서 지난해 어린이사망률이 0.48%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나라에서 지금까지의 가장 낮은 기록으로 된다.

보건의관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검진과 예방접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잠비아에서 잠비아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9.9%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올해에 인플레이션을 8%로 낮출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9개월 동안에 강철생산량이 788만t에 달하였다.

만 마 에서 만마에서 전력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칠레에서 칠레에서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1.8% 성장하였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9개월 동안에 강철생산량이 788만t에 달하였다.

기적을 낳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외국대표단 단장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대표단 단장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단장 레오바르도 알칸타라 마르티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완강한 의지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조선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과감한 총공격전을 벌이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민주여성평맹대표단 단장 마르세아 데 갈보스 페이 라는 칠리아계강맹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기적을 낳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외국대표단 단장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대표단 단장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단장 레오바르도 알칸타라 마르티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완강한 의지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조선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과감한 총공격전을 벌이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민주여성평맹대표단 단장 마르세아 데 갈보스 페이 라는 칠리아계강맹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기적을 낳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외국대표단 단장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대표단 단장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단장 레오바르도 알칸타라 마르티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완강한 의지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조선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과감한 총공격전을 벌이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민주여성평맹대표단 단장 마르세아 데 갈보스 페이 라는 칠리아계강맹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기적을 낳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외국대표단 단장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대표단 단장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단장 레오바르도 알칸타라 마르티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완강한 의지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조선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과감한 총공격전을 벌이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민주여성평맹대표단 단장 마르세아 데 갈보스 페이 라는 칠리아계강맹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반대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당국이 동부무드스의 《정착촌》들에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할 때 관련하여 그는 중국은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유대인의 최종지위문제는 해당 유대인에게 기호하여 회담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여 팔레스티나와 평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것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반대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당국이 동부무드스의 《정착촌》들에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할 때 관련하여 그는 중국은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유대인의 최종지위문제는 해당 유대인에게 기호하여 회담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여 팔레스티나와 평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것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반대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책동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당국이 동부무드스의 《정착촌》들에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할 때 관련하여 그는 중국은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유대인의 최종지위문제는 해당 유대인에게 기호하여 회담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여 팔레스티나와 평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것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범 죄 성형 —일본의 오사카에서 지난해 12월 28일 30대의 남성이 소형범사에 2명을 가두고 가수로 중독시켜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인 경악을 자아냈다.

한편 최근 프랑스의 북부지역에서 마약밀수범수가 드러나 250kg의 각종 마약이 압수되었다 한다.

에스빠냐의 비도리아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마약밀수범수가 드러나 2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13명의 마약관련범범수가 체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튀르키예의 아그리주에서는 185kg의 헤로인이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물수되었다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인범범수가 성형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있다.

최근 시장군의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시작으로 약 500건의 살인범범수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경제 침체 —미상무성은 얼마전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1월에 전국적으로 살림집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일본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도 떨어지면서 12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전염병에 의한 피해 확대

◆스리랑카에서 맹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 나라 보건성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만 1749명의 맹구열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9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현재 맹구열환자가 3만 9794명에 달하였으며 이 병으로 8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이 나라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코스타 리카보건성은 지난해 12월 18일 나라에서 이날 현재까지 A(H1N1)형류

전염병에 의한 피해 확대

림감기로 인한 사망자수가 4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실험동물감염자수는 약 150명에 달하였다 한다.

나라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코프디바르의 오디네네주에서 최근 황열병이 퍼져 피해를 일으켰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현재 맹구열환자가 3만 9794명에 달하였으며 이 병으로 8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이 나라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코스타 리카보건성은 지난해 12월 18일 나라에서 이날 현재까지 A(H1N1)형류

세계 상 식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프랑스의 체육활동가이며 이전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이었던 지에르스 리벳의 발기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앞둔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배리의 보석품에게 금집을 만들게 하여 대회의 우승컵을 만들어 주었다.

1956년에 그가 사망한 후 국제축구연맹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컵을 《플러이스 리벳컵》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플러

세계 상 식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프랑스의 체육활동가이며 이전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이었던 지에르스 리벳의 발기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앞둔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배리의 보석품에게 금집을 만들게 하여 대회의 우승컵을 만들어 주었다.

1956년에 그가 사망한 후 국제축구연맹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컵을 《플러이스 리벳컵》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플러

세계 상 식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프랑스의 체육활동가이며 이전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이었던 지에르스 리벳의 발기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앞둔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배리의 보석품에게 금집을 만들게 하여 대회의 우승컵을 만들어 주었다.

1956년에 그가 사망한 후 국제축구연맹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컵을 《플러이스 리벳컵》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플러

세계 상 식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프랑스의 체육활동가이며 이전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이었던 지에르스 리벳의 발기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앞둔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배리의 보석품에게 금집을 만들게 하여 대회의 우승컵을 만들어 주었다.

1956년에 그가 사망한 후 국제축구연맹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컵을 《플러이스 리벳컵》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플러

세계 상 식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프랑스의 체육활동가이며 이전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이었던 지에르스 리벳의 발기로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이 대회를 앞둔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배리의 보석품에게 금집을 만들게 하여 대회의 우승컵을 만들어 주었다.

1956년에 그가 사망한 후 국제축구연맹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컵을 《플러이스 리벳컵》으로 부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축구선수권대회를 《플러

방사 포

방사포는 로케트탄을 쓰는 무기이다. 일명 로케트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사용되어 오고있다. 로란이 탄두뒤에 붙은 로케트발동기에 의해 스스로 날아가므로 방사포는 로란에 방향을 잡아주는 레우

방사 포

방사포는 로케트탄을 쓰는 무기이다. 일명 로케트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사용되어 오고있다. 로란이 탄두뒤에 붙은 로케트발동기에 의해 스스로 날아가므로 방사포는 로란에 방향을 잡아주는 레우

방사 포

방사포는 로케트탄을 쓰는 무기이다. 일명 로케트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사용되어 오고있다. 로란이 탄두뒤에 붙은 로케트발동기에 의해 스스로 날아가므로 방사포는 로란에 방향을 잡아주는 레우

방사 포

방사포는 로케트탄을 쓰는 무기이다. 일명 로케트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사용되어 오고있다. 로란이 탄두뒤에 붙은 로케트발동기에 의해 스스로 날아가므로 방사포는 로란에 방향을 잡아주는 레우

방사 포

방사포는 로케트탄을 쓰는 무기이다. 일명 로케트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사용되어 오고있다. 로란이 탄두뒤에 붙은 로케트발동기에 의해 스스로 날아가므로 방사포는 로란에 방향을 잡아주는 레우